

아브라함의 칭의: 믿음과 할례, 유대인과 이방인

창 15:6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하는 칭의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야고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이 구절을 인용하며 믿음과 행위와 칭의의 관계를 깊이 다루고 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 이 할례가 칭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도 로마서 4장에서 정밀하게 다루어진다.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할례와 율법이 구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성경 전체의 핵심 질문들이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칭의와 믿음과 할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칭의란 무엇인가?

먼저 창세기 15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왕들을 정복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여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돌아왔다. 그 직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라고 하셨다(창 15:1).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패배시키고 돌아왔지만, 혹시 그 왕들이 다시 연합하여 침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창 13:15)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 주는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아브람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씨가 없는 현실 앞에서 아브람은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하셨다.

여기서 순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밤 아브람은 장막 밖에 서서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씨 하나 없는 늙은 몸으로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믿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 성경에는 “He believed in the LORD”라고 되어 있다. 영어에서 “believe in somebody”는 단순히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를 들어 “I believe you”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I believe in you”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 된다. 결국 어떤 인격체를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아는 수준을 넘어 그 인격체의 말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분명해진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약 2:19). 그러므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존재 인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다. 곧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주를

믿었다는 것은, 4-5절에 기록된 주의 말씀,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씨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상속 유업을 함께 나누어 받을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한다(롬 8:17).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씨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전지전능하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창 17:1; 렘 32:17; 딤후 1:2).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인격을 신뢰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 때, 아브라함의 내면이 즉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여러 실수를 반복하였다. **칭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법적 선언이다.**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것이 칭의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칭의는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하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선언에 있다.

또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아직 씨도 없었고, 약속의 성취를 보여 줄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는 대상이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문제이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다.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로 반복해서 인용된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등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이후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갈라디아서 3장 5-6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6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로마서 4장 3절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칭의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칭의도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구약 시대의 믿음과 신약 시대의 믿음은 서로 다른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10세기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이들이 믿는 믿음은 각각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다. 다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의 분량이 달랐고,

따라서 무엇을 믿느냐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아담은 여자의 씨로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창 3:15), 아브라함은 씨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신약 시대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계시의 분량과 내용은 시대의 전개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그 본질은 아담부터 21세기 그리스도인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장로들, 즉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내용의 약속을 받았지만 동일한 본질의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즉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다”는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믿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믿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믿음의 능력은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잘못된 대상을 믿는 것은 아무리 열정적이고 진지한 믿음이라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마귀 들린 자가 스게와의 아들들을 제압하는 사건이 나온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예수님과 참된 관계가 없었다. 믿음의 형식은 있었으나 믿음의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2-2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2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23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요한일서 7-9절도 마찬가지이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믿음은 반드시 바른 대상을 향해야 한다. 그 대상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경건한 감정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믿음의 방향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음은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곧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기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지성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실 때,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셋째, 믿음은 직관적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직관적이다. 그것은 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6-7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과 보는 것으로 걷는다는 것은 정반대이다. 보는 것으로 걷는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눈앞에 확인된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다. 별들을 바라보며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모리아 산을 오르며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는 숫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천국을 본 사람이 없고, 부활의 몸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직관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칭의는 행위와 무관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이전 사람이 있고 모세 이후 사람이 있다. 율법은 모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이전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고, 모세 이후 율법의 시대에 살던 사람의 예로 다윗을 들어서,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할레나 율법의 행위와 같은 어떤 외적인 행위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로마서 4장 1절에는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형식으로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그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들고 나온다.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롬 4:3)

4-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4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5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품삯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의를 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그 근거는 행위(일)가 아니라 믿음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표현은 어떤 사람의 계좌에 무언가를 넣어 주는 것을 뜻한다. 즉, 그 사람 안에 본래 없던 것을 그의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전가의 개념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안에 실제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돌려놓으심으로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곧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것이 칭의의 핵심인 이중 전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행위(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신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다윗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서 4장 6-8절은 시편 32편 1-2절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극도로 큰 죄를 범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도 죽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죄악이었고, 그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단 대언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보상을 제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죄를 제거하셨다. 다윗에게는 내세울 행위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이 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그의 죄를 가려 주시고 더 이상 그것을 그에게 돌리지 않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것 역시 전가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죄가 더 이상 다윗에게 계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심으로 그는 의로운 자로 간주된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부르셨다.

이러한 처지에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사람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더 이상 그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마서 4장 1-5절은 아브라함을 통해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로마서 4장 6-8절은 다윗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도 자기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증언한다.

결국 시대와 조건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원리는 동일하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칭의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3절의 논지는 이러한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4:2)라고 말할 뒤, 곧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4:3)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구조는 분명하다. 행위는 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믿음은 그 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만일 믿음 자체가 인간의 행위라면 바울이 굳이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여 설명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결과라면, “믿었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 그 경우 믿음은 더 이상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루어 놓으신 상태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분명한 응답이다.

성경은 믿음을 행위로 보지 않는다. 행위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위는 공로를 전제하지만, 믿음은 공로를 전제하지 않는다. 믿음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의존이며, 어떤 업적이 아니라 신뢰이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어떤 일을 이루어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신뢰하였다.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다. 만일 이것조차 인간의 공로로 본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행위와 무관한 칭의”라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

결국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칭의는 할례와도 무관하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창세기 17장 23-27절에 기록되어 있고, 24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기록한다.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내세울 수 있는 두 가지 표가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의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적을 주시면서 그와 그의 씨에게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표를 근거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이하에서 할례와 칭의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브람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고(창 12:4),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창 16:16). 또 창세기 16장 3절에 따르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준 때는 그들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이므로, 창세기 15장의 칭의 사건은 아브람이 약 84세에서 85세 무렵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그는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므로(창 17:1), 칭의와 할례 사이에는 약 14년의 간격이 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기 약 14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 곧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였다. 다시 말해, 그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민이며 자동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마치 멜기세덱 사건이 2,000년 후에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예표가 된 것처럼, 할례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이후 14년이 지난 뒤에야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건의 순서까지도 정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역사의 세세한 순서 하나까지도 미리 작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계획이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는가? 로마서 4장 11절이 그 답을 준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할례는 이미 믿음으로 받은 의를 봉인한 표식이다.

여기서 할례의 본질적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례는 아프다. 살을 베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식으로 굳이 이것을 선택하신 데는 의미가 있다.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것을 잘라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로 이어진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은 “너희는 주를 위해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라고 말하며, 로마서 2장 29절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라.”라고 말한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란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육신의 욕심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도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언약 백성의 표식이 된다.

다시 봉인의 의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의를 주셨고, 그것을 봉인하기 위해 할례를 주셨다. 마귀가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봉인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 봉인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봉인하셨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1장 13-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봉인된 것은 마귀가 열 수 없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이다. 아브라함에게 살을 베어내는 그 할례가 봉인이었다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고 계신다.

골로새서 2장 10-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할례를 설명한다.

10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11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12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리고 이 할례는 침례와 함께 설명된다.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약 성도가 받는 영적 할례의 실체이다.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우리의 마음에 받았다. 히브리 사람들은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의 표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상태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로마서 4장 1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믿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뜻하며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육신적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

12절도 매우 중요하다.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을 가리킨다. 바로 그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참된 의미에서 할례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이 핵심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 중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

오늘날도 동일하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구원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과 구원의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땅의 약속은 민족 전체와 관련된 것이지만 구원은 개인의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바로 그 믿음이다. 그것은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이며 어떤 공로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는 율법 준수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며, 어떤 인간적인 공로도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근거이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몸으로 보여 준 증거이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야고보서 2장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곧 칭의의 근거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말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뿌리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이다. 뿌리 없는 열매가 없듯이, 열매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열매가 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칭의는 뿌리의 문제이고, 야고보서가 다루는 것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면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위 강해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